

나부터 '공명' 해 환경단체들과 대화할 터

지울스님 단식 중단후 첫 기자회견... "과학적 조사 기대"

전성산 환경영향 조사가 3월 하순 본격 시작된다. 정부와 지울스님측은 3월 31일 정토회관에서 14명의 공동조사 전문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담을 열고 조만간 전성산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3월 20일경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환경조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 전까지 협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양측은 3월 2일 연세대 한성상 교수와 밀양대 최승현 교수를 비롯한 공동조사 참여 전문가 14명을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지하수, 구조지질, 지구물리탐사, 토목지질, 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울스님도 정책협상을 맡아 공동조사에 참여한다.

한편, 지울스님은 3월 2일 단식 회향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심경 등을 밝혔다. 지울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를 해 보겠다"며 "조만간 전성산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울스님과의 1문 1답.

▲건강은 어떠한지.
-아직까지 10m이상은 걷기 힘들다. 몸에 한기도 남아있다. 일어선면 조금 어지럽기도 하다. 미음을 먹으며 회복하고 있다.

▲단식 이후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
-과장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이 나온 것 같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봐주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100일 단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조잡제세의 글을 봤다. 또 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도 들었다. 전성산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해 놨다.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

▲3개월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전성산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눈과 계곡, 지하수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학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결과보다 환경영향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지울스님. 사진=박재원 기자

▲공동조사에 참여하는가.
-전성산 문제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조사단에 들어가 협상과 조정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과학적인 조사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나는 보조 역할을 한다.

▲그 동안 단식을 진행하면서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모두 나의 잘못이다. 사회운동 전반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이 많았다. 나부터 '공명' 해 앞으로는 환경단체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활동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세계여성학대회에 지울스님 패널 마련

6월 19~24일, 환경·종교·생명 등 3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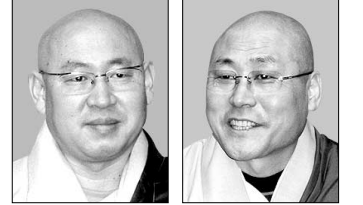
지울스님의 100일 단식을 종교와 여성의 눈으로 보면 어떠한가?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함께 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이화여대 등에서 진행되는 제9회 세계여성학대회에 바로 그것이다.

지울스님 패널토론회에서는 서강대 종교학과 김성혜 교수가 '생명중여의 사회윤리와 여성적 힘'을, 서울대 철학과 조은수 교수가 '도통농을 위한 외로운 싸움: 불교의 환경윤리 실천하기'를 각각 발표한다. 또 원불교 이원조 교무는 '지울스님 단식의 종교적 의미'를 고찰할 예정이다.

조은수 교수는 "종교인으로서 여성이기도 한 지울스님이 우리사회에 일으킨 반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패널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제적인 자리에서 지울스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여성학대회는 3년마다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로, 올해 대회에서는 '경계를 넘어서: 동-서/남-북'을 주제로 진행된다. 유철주 기자

사회부장 정념 스님, 호법부장서리 종수 스님, 조계종 총무원 인사



정념 스님, 종수 스님

조계종 총무원 새 사회부장에 정념, 호법부장서리에 종수 스님이 3월 3일자로 임명됐다.

정념 스님은 1982년 사미계, 8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99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총무원 사회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 불경암 주지를 맡고 있다.

1975년 사미계, 82년 구족계를 수지한 종수 스님은 삼불사·분향사 주지, 총무원 감사·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영덕 장유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능인선원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못쓴다

서초동 법당 명실이유... "명칭 바꾸겠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도심포교당인 능인선원(원장 지광) 명칭 앞 '대한불교조계종' 표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3월 3일 열린 총무회의에서 능인선원 소유의 서울 서초동 법당에 대해 등록말소를 결정했다. 총무원은 곧 이 같은 결정과 능인선원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이란 표기를 못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총무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서초동 법당이 삼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이미 명실대 신탁등기 됐다기 때문이다. 총무원측은 현재 서초동 법당에서 종교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교당이 건립되면 다시 등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능인선원측은 아파트 준공 후 재개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능인선원이 위치한 서울 포이동 건물의 종단 등록여부다. 능인선원측은 총무원으로 발송한 2월 25일자 공문에서 '포이동 소재 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의 기본재산으로

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1995년 9월 7일 보존등기가 완료됐으며, 동 부동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종단 재산 등록을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측은 포이동 건물은 서초동에서 이전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이동 건물을 능인선원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로 간주해야 하며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능인선원측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명칭을 종단등록 사찰인 고양시 국녕사 소속으로 밝히는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1995년 9월 7일 보존등기가 완료됐으며, 동 부동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종단 재산 등록을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측은 포이동 건물은 서초동에서 이전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이동 건물을 능인선원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로 간주해야 하며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능인선원측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명칭을 종단등록 사찰인 고양시 국녕사 소속으로 밝히는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새로운 봉축음악 들으세요"

봉축위 '나눔과 기쁨' 등 제작...영상물도 접수

봉축위원회는 "올 연등축제의 봉축기간에 사용할 봉축음악을 작곡가이자 가수인 김현성('이등병의 편지' 작곡가)에게 의뢰해 '연등 들어 밝히자'와 '나눔과 기쁨'을 개발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이 중 '연등 들어 밝히자'는 흥겨운 민요풍의 노래로 온 세상 모든 생명이 함께 노래하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밝혀 축복하자는 뜻을 담았다. '나눔과 기쁨'은 건전가요풍으로 작은 냇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모으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음악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자료실 동영상자료실에서 들을 수 있다.

봉축위는 또 연등축제를 준비하는 모습과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모은 영상물들을 접수한다. 5월 30일까지 자체 편집 완료 후 6mm 테이프 및 화면 설명 문건을 봉축위(02-2011-1747)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불기 2549년 봉축표어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박종화 과장이 응모한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이 선정됐다. 또 '우리도 부처님같이'도 부처님오신날 고정 표어로 함께 사용된다. 남동우 기자

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1995년 9월 7일 보존등기가 완료됐으며, 동 부동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종단 재산 등록을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원측은 포이동 건물은 서초동에서 이전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이동 건물을 능인선원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로 간주해야 하며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능인선원측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명칭을 종단등록 사찰인 고양시 국녕사 소속으로 밝히는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호주제 폐지' 승려자격에 어떤영향 미칠까?

출가자 자격규정 안 바뀌면

종헌·종법상 문제될것 없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호주제가 폐지된다. 그렇게 되면 조계종의 승려자격 규정과 이를 검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변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종헌에는 승려자격을 '구족계의 보살 계를 수지하고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독신자'라는 문구. 조계종은 '독신자'를 '결혼을 하지 않은 독거자' 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찰에서 독신으로 상주하는 승려'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불교계 일각에서는 출가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호주로 돼 있는 경우 진정한 '독신승려'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어디까지나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조계종 종헌이나 종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계종의 출가자 자격규정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적이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독신자'라는 검증이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로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와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신분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신상을 상세히 기록하는 '개인호적제' 즉 '1인1적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혼인 등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신상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도 기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은 2010년에 분한 신고를 받게 돼 있어 법이 시행되는 2008년 이후 2년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732-1522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만2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訃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도암당 성도 대중사 원적
告

귀의삼보하옵고,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도암당 성도 대중사에서
세연(世緣)이 다하시어
불기 2549(2005)년 2월 25일(음력 1월 17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중구 신당4동 흥도사에서
원적(圓寂)하셨습니다.

◆ 영결일시 : 불기 2549(2005)년 3월 1일 (음력 1월 21일) 오전 9시

◆ 영결식장 : 서울 잠실 아산병원

◆ 다비장 : 오산 진위사

◆ 문의 : (02)3010-2294
(02)2234-2198 (흥도사)

■ 성도대중사 종단장 장의위원회 명단

- 증 명(證明) : 율하
- 고 문(顧問) : 법청, 청암, 법정, 법호
- 지도위원(指導委員) : 법상
- 호 상(護喪) : 법공
- 장의위원장(葬儀委員長) : 법천
 - 부위원(副委員長) : 법진
 - 장의위원(葬儀委員) : 법명, 원해, 법운, 벽송, 봉실, 혜공, 성룡, 도일, 보해, 보명, 혜천, 법은, 연심, 혜월, 해암, 법등, 혜진, 해명, 해륜, 혜일, 천와, 해안, 일몽, 일각, 선림, 선담, 혜진, 혜연, 혜일, 선천, 명진, 혜명, 원심, 혜정, 법성, 진각, 법덕, 법심, 법봉, 법하, 법경, 여일, 법우, 법계, 법진, 법홍, 운강, 지산, 대성, 법향, 청운, 혜선, 송풍, 경덕, 경인, 법일, 혜동, 도성, 모덕, 벽천, 법광, 능일, 벽담, 법신, 일산, 일각, 황해, 성명, 일련, 혜성, 법경, 혜선, 벽암, 보인, 성만, 혜천, 혜선, 보경, 정향, 덕문, 혜원, 지덕, 정광, 보심, 보덕, 수암, 태원, 혜민, 정도, 수현, 묘법, 지명, 경보, 경화, 경각, 경은, 연화, 도해, 법정, 혜경, 보화, 보현, 태원, 관봉, 일공, 정보, 권웅, 일봉, 혜원, 수경, 수월, 청암, 법정, 정득, 법정, 경법, 일두, 해동, 덕수, 도림, 혜승, 지우, 청심, 법경, 호암, 월상, 보광, 영인, 성법, 혜원, 도우, 여래, 무상, 벽민, 필아 (무순)
-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 : 법호
- 도 감(都監) : 지법
- 병 법(秉法) : 법타, 혜심, 보덕
- 의 전(儀典) : 법인, 덕문, 성공, 덕일, 수암, 벽담, 일봉, 법웅, 법현, 법진
- 호 법(護法) : 법인
- 재 무(財務) : 법웅
- 홍 보(弘報) : 법서, 법명, 도성, 원심, 혜능
- 문 도 대 표(門徒代表) : 법공, 법정, 법상
 - 상 좌(上佐) : 법명, 법천, 법성, 법청, 법광, 법등, 법화, 법신, 법호, 법장, 법진, 법오, 법운, 법현, 법인, 법관, 법준, 법우, 법창, 법서, 법홍, 법웅, 법해, 법호, 법관, 법화, 법계, 법향, 법경, 법산, 법열, 법덕, 법운, 법륜, 법수 (무순)
- 손 상 좌(孫上佐) : 일봉, 봉실, 벽화, 벽인, 벽진, 벽득, 벽성, 벽송, 벽천, 벽암 (무순)
- 재 가 상 좌(在家上佐)
- 흥도사 신도대표
- 회 장 : 서운자
- 부 회 장 : 배상옥
- 총 무 : 이지희, 최윤정

불기 2549년 2월 25일

대한 불 교 대 승 종 총 무 원 장